

朝鮮 世祖의 學術活動과 書籍文化에 대한 考察*

A Study on the Academic Activity of King Sejo and Book Culture of the Reign of King Sejo in Chosun Dynasty

김윤식(Kim, Yoon-Sik)**

◁ 목 차 ▷

1. 序 論	3.1 世祖의 學術活動
2. 世祖朝 書籍文化의 時代的 背景	3.2 世祖의 文興政策
2.1 政治 社會의 背景	4. 世祖朝의 圖書編纂 및 刊行
2.2 前代의 圖書編纂 및 刊行 狀況	4.1 圖書編纂
3. 世祖의 學術活動과 文興政策	4.2 圖書刊行
	5. 結 論
	<참고문헌>

< 초 록 >

本稿는 世祖朝의 圖書編纂과 刊行狀況이 당대의 정치 사회적 배경과 왕의 學術活動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었는지를 밝혀보고자 연구한 것이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조는 즉위 초 불안정한 정치 사회적 상황을 강력한 왕권강화와 富國強兵에 주력하여 점차 안정을 가져왔으나, 학술문화 사업의 지원은 미흡했다. 세조는 潛邸時에 다양한 학문을 두루 섭렵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왕위에 올랐으나, 즉위 후에는 스스로 君德함양을 위한 학문활동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관료와 유생들의 학문진흥을 위한 전강의 자리를 마련하여 文風을 振作시키고자 노력하였다.

둘째, 세조의 학문관은 文과 武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經史를 포함한 다양한 실용 학문을 중시하였으며, 유교보다 불교를 더 숭상한 好佛 性向을 지니고 있었다.

셋째, 도서편찬은 전반적으로 미흡한 편으로 당대의 학술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편찬도서 중 兵書와 佛書諺解書의 편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편찬도서 중 失書와 佛書諺解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도서관행에서도 佛書가 다량 인쇄되었던 것은 세조의 崇武의이고 好佛의인 성향과 관련성이 있다.

요어 : 세조, 조선전기, 서적문화

* 이 논문은 2004학년도 연구년의 연구임

** 동덕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yskim@dongduk.ac.kr)

접수일: 2004년 11월 10일 최초심사일: 2004년 11월 17일 심사완료일: 2004년 12월 15일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clarify how the book publishing and printing related to the social and political background, and academic activity of King Sejo(世祖)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 in Chosun(朝鮮) Dynasty. The summarization is as following.

1. King Sejo concentrated on strengthening royal authority and establishing wealthy country and powerful army to stabilize the shaky social status right after he mounted the throne. However, this policy didn't help facilitating academic culture. The King Sejo studied through extensive academic area and was equipped with sufficient knowledge and experiences before ascending the throne. Even though he didn't do academic activities as a King, but he summoned officials and Confucian scholars and lectured them by himself to promote academic mood.

2. King Sejo considered pen as important as sword, and thought various practical learning including learning of ethics and history. Furthermore, he preferred Buddhism to Confucianism. This view of learning and promotion policy for academy affected the book publishing and printing significantly.

3. The book publishing was broadly not enough to show brisk academic activities. The publishing of military books and the explanatory books for Buddhist literature showed the preference to military and Buddhism. He established Gangyeongdogam(刊經都監) to publish many Buddhism books in wood block printing. This also reflects the pro-Buddhism tendency of the King Sejo.

Keywords : sejo, chosun, book culture



1. 序 論

朝鮮 초기에 도서편찬과 인쇄가 가장 성행하였던 시기는 世宗朝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한 업적을 이룩한 것은 우선 세종의 훌륭한 학덕과 뛰어난 領導力에 기인한 것이지만 그 이면에는 父王인 太宗이 왕권을 강화하고 정치 사회적 안정된 기반을 마련해 놓은 것을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제 군주 체제의 한 역조에 있어 왕의 右文的 性向과 당대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 여부는 학술문화 발전에 실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과 관련하여 世祖의 學術活動 및 學問觀을 자세히 살펴보고 도서편찬 및 간행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이미 세조조의 서적문화와 관련된 논문이 여러 편¹⁾ 발표되어 있으나 대부분 도서 인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어 필자가 연구하려는 내용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본 논문을 작성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다.

본 논문은 世祖實錄을 위주로 하고 이들 논문과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전개하고자 한다.

첫째, 세조의 서적문화 발전과 관련된 당대의 정치 사회적 배경, 그리고

문종과 단종조의 도서편찬과 간행사정을 살펴보고,

둘째, 세조의 학술활동은 어떠한었는지 즉위전과 즉위후로 구분하여 밝혀 본다.

셋째, 세조의 학문적 성향을 논하고 당대의 문풍을 진작 시키기 위하여 세

1) 金鉉淑, “朝鮮 世祖朝의 印刷文化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朴貞淑, “世祖代 刊經都監의 設置와 佛典刊行,”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6).
서진원, “朝鮮 世祖朝의 佛敎政策과 佛書刊行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47권 제3호 (1992, 5.6), 17-24.

李鍾權, “朝鮮朝 國譯 佛書 刊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8).

千惠鳳, “朝鮮前期佛書板本-世祖朝 佛書板本,” 『한국서지학연구』 (서울: 古山千惠鳳教授 停年紀念選集刊行委員會, 1991), 686-693.

千惠鳳, “乙亥字本. 丁丑字本. 戊寅字本. 乙酉字本,”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309-326.

조가 어떠한 일을 시행하였는지를 조사하고,
넷째, 당대의 도서편찬과 간행상황을 밝혀 세조의 학술활동과의 관련성을
고찰 해보고자 한다.

이상의 내용을 고찰해봄으로써 朝鮮朝 前期 書籍文化史 研究에 一助하고
저 한다.

2. 圖書編纂 및 刊行的 時代的 背景

2.1 政治 社會的 背景

조선 왕조 초기의 통치 체제는 여러 차례의 왕자의 난을 치루어 승리함으
로써 왕위에 오른 太宗이 주 골격을 마련하였다. 태종은 즉위하기까지 무력으로
政敵을 제거하는 한편 宗親과 重臣들의 사병을 혁파하여 共兵化하였으며,
개국공신의 연합체인 都評議使司를 폐지하고 政務의 기능만을 관장하는 議政
府를 설치하는 등 병권과 왕권의 집중을 피하여 왕권강화의 기초를 마련하였
다. 즉위 후에도 태종은 더욱 왕권강화에 주력하여 수차의 官制改革을 단행하
고 議政府署事制를 六曹直啓制로 교체하여,²⁾ 臣權의 약화를 기도하였으며 중
친과 외척과의 정치참여를 억제하기 위하여 敦寧府를 설치하고 그 집권체제
를 구축하는데 장애가 되는 인물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차없이 처형하는
등 강경하고도 과감한 정책을 통해 정치적 안정을 마련하는데 성공하였다. 사
회적으로는 量田事業을 실시하고, 寺社田을 혁파하여 公田으로 귀속시켜³⁾ 농
민생활의 안정과 국가수입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안정과 더불어 사회적 안정
을 기하고자 노력을 기울였다. 이와 같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마련하여 다음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으므로 세종은 六曹를 중심으로 정

2) 「太宗實錄」 권27, 14년 4월 庚寅

3) 「太宗實錄」 권11, 6년 3월 丁巳

부의 기본조직을 유지하면서 의정부의 罷事權을 부활하여 원숙한 정치체제를 이루었으며 집현전과 같은 기관을 중심으로 右文政策을 추진하여 학술문화를 크게 융성시킴으로써 많은 도서편찬과 간행이 이루어졌다.

세종이 세상을 떠난 후 즉위한 文宗은 父王때의 안정된 정치 사회적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해 갔으나, 몸이 허약하여 국정은 의정부에서 운영하게 되어 의정부의 힘은 커지고 반대로 왕권은 약화되었다. 더욱이 문종의 夭折로 보위에 오른 端宗은 나이가 너무 어려, 대부분의 정무는 의정부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으로 처리되었으니 왕은 그저 허수아비나 진배없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보아온 首陽大君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고 때를 기다리던 중 단종(1453)1년 癸酉년에 權擘, 韓明澮, 洪達孫, 楊汀 등의 무인들과 靖難을 일으켜 皇甫仁, 金宗瑞, 趙克寬, 安平大君 등을 肅清하였다. 계유정난을 성공적으로 마친 수양대군은 領議政府事, 領經筵書雲觀事, 判吏兵曹事 등을 겸직함으로써 政權과 兵馬權과 함께 장악하고 왕권강화를 위해 새로운 정치체제를 구축해 나갔다.⁴⁾ 이러한 과정에서 단종은 禪讓의 형식으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넘겨주었으며, 즉위한 세조는 議政府의 의사정책 결정권을 폐지, 재상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六曹直啓制를 부활시켜 왕권을 강화했다. 즉위후 2년에는 端宗 復位事件으로 혼란한 정국을 맞이하였으나, 관련된 많은 신료와 학자들을 처형함으로써 오히려 강력한 왕권과 그 추종 세력을 강화해 나가는 구실이 되었다. 이와 같이 세조는 초기부터 쿠데타 식으로 많은 정적을 살해하고 정권을 쟁취함으로써 정치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출발하였지만 위기를 강력하게 대처하고 잘 극복함으로써 점차 정치적 안정을 가져올 수 있었으나 대립과 반목을 해소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또한 세조는 국가재정 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종전 퇴직관료에게 지급하던 科田을 폐하고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하는 職田制를 실시하였으며, 鎭管體制를 구축하여 변방중심 방어체제를 전국적인 방어체제로 바꾸고, 戶籍사업을 강화하고 保法을 실시하여 軍丁數를 1백만으로 늘리는 등 富國強兵策을

4) 『端宗實錄』 권8, 원년 10월 甲午.

적극 추진하여 경제 사회적 안정을 가져오는데 노력하였다.⁵⁾ 그러한 결과로 재위 말기인 세조(1467)13년에 일어난 李施愛의 亂도 무난히 평정할 수 있었으며 이를 계기로 留鄉所를 폐지하고 토호 세력을 약화시키는 등 중앙집권체제를 더욱 공고히 수립하였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처럼 태종이 구축한 강력한 왕권하에 정치적 안정이 세종 문종조에 이어졌으나, 단종조에 들어서 정치적 혼란을 癸酉靖難으로 평정하고 실권을 쥔 후 왕으로 즉위한 세조는 우선적으로 왕권 강화와 부국강병에 주력하였으므로 당시 전반적인 정치 사회적 사정은 학술문화 사업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특히 단종 복위사건으로 인하여 집현전의 혁파와 학자들의 많은 손실은 학술활동을 위축시켜 세종조의 전성기를 맞이했던 서적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믿어지나, 세조의 학술활동과 文興政策이 얼마나 보탬이 될지 뒤에서 살펴보겠다.

2.2 前代의 圖書編纂 및 刊行狀況

世祖 이전의 도서 편찬 간행이 활발했던 시기는 당연히 世宗朝이나 이 시대의 관련 저서는 많이 발표되어, 조선 전기의 가장 찬란한 학술 문화 전성기로 주지되고 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세조조 바로 직전의 文宗과 端宗 양시대의 도서편찬과 간행사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2.1 文宗朝의 圖書編纂 및 刊行

文宗은 太宗 14년(1414) 世宗의 맏아들로 태어나 세종3년(1421) 7세에 일찍이 왕세자로 책봉되었으며 諱는 珣이요 자는 輝之이다. 성품이 寬仁하고 明哲하며, 剛毅하고 簡默하며, 孝友 恭儉하며, 盛色 과 戲玩을 좋아하지 않고 학문에만 전심하였다. 전대의 역사를 널리 보고 치란의 기틀을 강구하였으며, 六

5) 한영우, 「우리역사」(서울: 경세원, 1997), 226-227.

藝, 天文, 曆象, 聲律, 音韻에 이르기까지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⁶⁾

문종은 潛邸時 30년 동안 世子로 있으면서 父王의 文興政策에 참여한 바 많았고, 부왕의 건강으로 세종27년(1445)부터는 여러 가지 정무에 참여하여 재결하였는바 즉위 전에 이미 정치적 경험도 쌓았다. 1450년 세종이 승하한 후 세종 후반의 정치 사회의 전반 사정을 그대로 이어 받고 즉위하였으므로 학술문화 사업도 별 어려움이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을 것이다.

문종은 학교는 風化의 근원이라 하여 이후부터 館閣의 당상관과 3품이하의 관원들로 하여금 번갈아 성균관에 出仕하여 講論하고 教養토록 教旨를 내렸으며,⁷⁾ 재위기간 동안에 經筵과 輪對에 임하기를 한결같이 세종대의 故事에 따라 행하여 군덕함양을 위한 학술활동에 정진하였음을 밝히고 있듯이⁸⁾ 자신의 군덕함양을 위한 학문 활동에 열성을 보여 주었으므로 집현전 학사들을 비롯한 신료들의 학문적 활동을 장려함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 된다.

이처럼 우문적 성품을 지닌 문종이 오랜 기간 재위하였다면 세종이 이루어 놓은 학술 문화적 업적을 계승하여 더욱 많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을 텐데 즉위하여 2년 4개월이란 너무나 짧은 기간 재위하고 세상을 떠났으므로 괄목할 만한 치적을 기대할 수 없었다. 오히려 세종 말년의 약 5년간 섭정할 때 치적을 문종의 공으로 돌린다면 더 많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문종이 즉위한 1450년 2월부터 동왕 2년(1452)년 5월까지에 이루어진 업적 중 도서편찬과 간행상황을 문종 실록을 근거로 간략하게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문종이 즉위한 해의 첫 도서편찬의 記事는 즉위년 3월에 의정부에서 “지금 중국에 변고가 있으니 우리나라도 변방 지키는 일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삼국으로부터 고려에 이르기까지 적이 내침한 일과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방비책과 이해득실을 상세히 고증하고 채집해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의를 쾌히 받아 들여 문종은 속히 찬집해 간행하고 널리 배포하라며 그 책

6) 『文宗實錄』 권1, 序

7) 『文宗實錄』 권10, 원년 11월 甲子

8) 『文宗實錄』 권13, 2년 9월 庚寅의 誌文 參照

명을 「東國兵鑑」으로 명하였다⁹⁾고 적고 있다.

이 「東國兵鑑」은 언제 완성되고 간행되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추측컨대, 문종은 「陣法」을 찬술하는 등 병법에 관심이 많았으므로 자신도 직접 관여하여 당대에 편찬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믿어진다.

문종 1년(1451)에 들어서 5월에 예조참판 鄭陟이 「兩界地圖」를 찬진하였고,¹⁰⁾ 동 6월에는 왕이 친히 「陣法」을 편찬하였다.¹¹⁾ 또한 동 8월에 金宗瑞 등이 「高麗史」를 새로 편찬하였는데 이 책은 세종조에 시작되어 수년이 걸려 이루어진 것으로 世家 46권, 志 39권, 年表 2권, 列傳 50권, 目錄 2권으로 구성되었다.¹²⁾ 문종은 그 내용이 방대하여 번문을 줄여 읽기 편하게 編年記事로 새로 엮을 것을 명하였으며, 동 9월에는 金湊에게 새로 찬한 「兵要」를 注하도록 명하였다.¹³⁾

문종 2년(1452) 2월에는 「世宗實錄」을 許詔, 朴仲休, 李季甸, 鄭昌孫, 辛碩祖, 등에게 分年 撰集 시키고 皇甫仁, 金宗瑞, 鄭麟趾 등에게 감수시켰으며¹⁴⁾ 전년도에 왕명에 의하여 시작한 고려사의 요약본인 「高麗史節要」를 金宗瑞 등이 찬진하였다.¹⁵⁾

다음으로 도서 간행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문종은 즉위하여 선왕의 활자 주조사업을 계승하여 庚午字를 제작하는 등 활자 인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 활자는 安平大君 瑒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것인데 「古文眞寶大全」, 「古今歷代十八史略」, 「新編算學啓蒙」 등을 간행하였으며¹⁶⁾, 그 외 간행도서로는 즉위년에 「小學」을 正音廳에서 간행하였고¹⁷⁾, 「東

9) 「文宗實錄」 권1, 즉위년 3월 乙卯
 10) 「文宗實錄」 권7, 원년 5월 丙寅
 11) 「文宗實錄」 권8, 원년 6월 丙戌
 12) 「文宗實錄」 권9, 원년 8월 庚寅
 13) 「文宗實錄」 권9, 원년 9월 丁酉
 14) 「文宗實錄」 권12, 2년 2월 丙戌
 15) 「文宗實錄」 권12, 2년 2월 甲申
 16) 千惠鳳, “庚午字攷,” 『韓國書誌學研究』 (서울: 古山千惠鳳教授停年紀念選集刊行委員會 1991), 860-880.
 17) 「文宗實錄」 卽位年 10월 庚子. 12월 丁亥

國兵鑑」과 「雅樂譜」, 「高麗史」, 「孫子」, 「三綱行實」 등이 간행되었다. 문종 1년에는 「十八史略」을 鑄字所에서 인쇄하였고¹⁸⁾, 「四書三經」을 경판이 있는 각도에서 간행토록 명한 일로 미루어 세종때 제작되어진 책판을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필요시 자주 목판본이 간행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이 문종조의 도서 편찬이나 간행의 실적은 문종의 재위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많은 편은 못되지만, 우문적인 왕의 성품이나 당대의 정치 사회적 사정이 세종조와 마찬가지로 안정된 상태였다는 점에서 세종조 말기의 서적문화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2.2 端宗朝의 圖書編纂과 刊行

端宗은 문종의 외아들로서 세종 23년(1441)에 탄생하여 諱는 弘曄다하고 세종 30년(1448) 7세때에 왕세손으로 책봉되었으며 문종 즉위년(1450)에 왕세자로 책봉되었다. 문종이 세종 32년(1452) 5월에 승하하였으므로 11세의 나이로 왕위에 올랐다.

단종이 너무도 어린나이였으므로 정무에 관한 일들이 의정부 대신들에 의해 처리되었고 차츰 그들의 권한이 극대해져 감으로서 왕권은 미약 해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태를 저지하기 위해 首陽大君은 癸酉靖亂을 일으켜 安平大君을 비롯하여 실권을 가진 대신들을 숙청하고 새롭게 인사개편을 단행하여 모든 권한을 쥐는데 성공하였다. 정란으로 인하여 정치적 혼란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동왕 3년(1455) 6월에 수양대군이 조정의 신료들과 의논하여 왕의 측근인 錦城大君 이하의 여러 종친, 궁인 및 신하들을 죄인으로 몰아 각 지방에 유배시키기를 청하므로 단종은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마침내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물려주고는 上王으로 물러났다.

이처럼 단종의 재위기간은 부왕과 마찬가지로 극히 짧았을 뿐 아니라, 그 기간도 의정부 대신과 수양대군의 정치 관여로 실제 단종의 치적을 운운하기

18) 「文宗實錄」元年 7월 辛亥.

는 무리가 있다고 하겠다. 다만 실록을 통해 단종조의 도서편찬과 간행사정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서편찬에 관한 기사는 즉위년 5월에 승정원에서 首楊大君 등이 문종의 명으로 편찬한 「歷代兵要」를 올린바 있으며¹⁹⁾ 동왕 1년(1453) 10월에는 直殿 梁誠之에게 「朝鮮都圖」, 「八道各圖」, 「州府郡縣各圖」를 엮는 것을 관장하도록 지시하였다.²⁰⁾ 동왕 2년 정월에 양성지가 「皇極治平圖」를 찬진하였고,²¹⁾ 3월에는 문종 2년(1454) 3월부터 시작한 「世宗實錄」이 2년 1개월이 걸려 163권의 방대한 거질로 春秋館에서 찬진되었다.²²⁾ 동왕 3년(1455) 1월에 承文院에서 5년마다 찬집하는 「吏文臚錄」이 엮어졌으며²³⁾ 동 2월에는 세종 27년(1445) 정월 국역에 착수한 「洪武正韻譯訓」이 완성되었다.²⁴⁾ 동 4월에는 「貞觀政要」의 註釋 작업과 「文宗實錄」의 편찬이 거의 완료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하였다.²⁵⁾

도서의 간행 상황을 보면, 즉위년(1452) 8월에 「十八史略」과 「古文眞寶」가 인출되었고, 11월에 「歷代兵要」, 「孫子」, 「三綱行實圖」 등을 인쇄하도록 명을 내렸다.²⁶⁾ 동왕 1년(1453) 6월에는 주자본 「左傳」을 전라도에 내려 보내 목판으로 간행하도록 하였으며, 樂學提調 朴堧의 건의로 세종조에 인쇄하지 못한 樂譜法의 간행을 허락하였다.²⁷⁾ 7월에는 「高麗史節要」를 인쇄하여 반사하였고, 9월에 承政院에서 崔致遠의 「桂苑筆耕」의 책판이 50여판 분실된 것을 補刻하기를 건의하였는데 이를 허가하였다. 동왕 2년에는 「禮記淺見錄」, 「入學

19) 「端宗實錄」 권1, 즉위년 5월 戊午에 “承政院進 世祖所撰歷代兵要”로 되어있으나, 이 책은 이미 세종이 정인지, 유효통, 이석형에게 저술토록 하고 首陽에게 총괄토록 한 것이다.(世宗實錄 권106, 26년 11월 癸巳. 參照)

20) 「端宗實錄」 권8, 원년 10월 庚子

21) 「端宗實錄」 권10, 2년 1월 己卯

22) 「端宗實錄」 권10, 2년 3월 辛巳

23) 「端宗實錄」 권13, 3년 1월 丁卯

24) 申叔舟, 「保閑齋集」 권15, 序 洪武正韻譯訓序

25) 「端宗實錄」 권13, 3년 2월 乙酉

26) 「端宗實錄」 권2, 즉위년 8월 戊辰 권4, 즉위년 11월 庚午

27) 「端宗實錄」 권6, 원년 6월 庚寅, 戊申.

圖說」, 「入學圖補說」을 간행 하였다.²⁸⁾

이처럼 단종조의 도서편찬이나 간행 실적은 문종조와 마찬가지로 왕의 재위기간과 관련하여 비슷한 수준이나, 단종의 치적이라기보다는 부왕때 신료들이 학술 활동으로 행해왔던 동일한 과정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라 할 수 있으므로 왕의 학술활동 등 여타 영향 관계를 굳이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3. 世祖의 學術活動과 文興政策

3.1 世祖의 學術活動

현대 사회와 달리 전통적인 전제군주사회에 있어서 왕의 성품과 통치능력은 국가 발전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라는 점에서 세조의 학술활동과 학문성향은 어떠하였으며, 그것이 학술 문화적 사업인 도서편찬 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점에 대하여 재위 이전과 이후의 기간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겠다.

3.1.1 潛邸時의 學術 活動

세조는 아버지 세종과 어머니 昭憲王后의 둘째 아들로 태종 17년(1417)에 태어났으며 諱는 유이며 자는 粹之이다. 처음에 晉平大君으로 봉해졌다가 그 후 威平大君, 晉陽大君으로 바꾸었다가, 다시 세종 27년(1445)에 首陽大君으로 개명하여 봉해졌다. 세조의 어린 시절은 태종이 이루어 놓은 정치 사회적으로 안정된 기반을 토대로 하여 학술 문화를 찬란하게 꽃피웠던 세종 시대에 살아가면서 부왕으로부터 많은 교육과 학술 문화적 활동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특히 세조는 어렸을 때부터 성품이 활달하고 다재다능하여 文과 武를 공히

28) 「端宗實錄」 권7, 권7, 7월 丁丑. 원년 9월 戊寅 권10, 2년 3월 甲子.

연마하는데 전력을 다하여 세종으로부터 신임을 받았다. 십대부터 궁마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수련하여 탁월한 무예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성균관에 입학하여 수학하면서도 천하의 서적을 모두 읽지 않으면 다시 활을 잡지 않겠다고 할 만큼 많은 독서를 하고 학문연마에 전력하였던 것으로 전하고 있다.²⁹⁾

세종은 자제교육에 관심을 갖고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을 집현전관인에게 가르치도록 하여 날마다 읽은 것은 반드시 외우게 하였으며, 집현전관인과 강독하는 자리에서 일 년에 20차례 이상 직접 글을 읽게 하고 날마다 통하고 통하지 않은지를 월말에 계문토록 하였다. 또한 晉陽(首陽)대군에게 직접 강의를 하겠다고 하였으며 「律呂新書」, 「農書」, 「資治通鑑」 등의 도서를 읽으라고 직접 내려주기도 하였다.³⁰⁾

이처럼 부왕의 특별한 애정과 가르침을 받아 세조는 학문적 소양을 갖추는데 열성을 다하였다. 세종도 이를 인정한 듯 동왕 16년(1434) 甲寅字를 20여 만자를 주조하는데 「孝順事實」, 「爲善陰騭」, 「論語」 등의 자형을 자본으로 하고 부족분은 17살이 된 수양대군에게 글씨를 쓰게 하였으며³¹⁾ 동왕18년(1436)에 丙辰字를 주조 하는데도 수양대군에게 자본을 쓰게 하여³²⁾ 20세가 되기도 전에 이미 활자주조에 직접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세종 20년대 들어서는 集賢殿 학사들과 교류하면서 도서편찬 간행 및 번역 등에 참여하여 깊이 있고 폭넓은 학술활동을 하게 되었다. 도서편찬과 관련된 활동을 보면, 먼저 세종 23년(1441)에 「治平要覽」을 편찬하는 일에 세종은 수양대군에게 감독케 하였다. 이 책은 여러 史書を 상고하여 국가의 흥망과 군신의 邪正, 政治, 風俗, 人倫 등에 勸懲이 될 만한 것을 뽑아 엮은 것으로 鄭麟趾와 집현전 학사들이 동왕 27년에 이르러 150권의 거질로 편찬한 것이다.³³⁾ 세종 만년에는 문종과 함께 武經七書를 주해하고, 우리나라와 중국의

29) 「世祖實錄」 권1, 總書

30) 「世宗實錄」 권92, 23년 1월 丁未. 동 권83 20년 11월 癸卯 「世祖實錄」 권1, 總書

31) 甲寅字에 대해서는 「세종실록」 권65, 16년 7월 丁丑. 金鑄, “鑄字跋”(각종 初鑄甲寅字本所收) 成倪. 慵齋叢話 권7. 등 參照.

32) 「世宗實錄」 권74, 18년 7월 壬戌 “... 其舊鑄字樣精密 上廬春秋高則於觀覽 令晉陽大君宥書大字新鑄之 以新字爲綱舊字爲目”

역대 攻戰事蹟을 수집하여 엮은 「歷代兵要」 편찬에 관여하였다.³⁴⁾ 「貞觀政要」에 주를 붙인 일도 있으며, 세종 29년(1447)에 「釋譜詳節」을 편찬하였다.³⁵⁾ 이 책은 어머니인 소현왕후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수양대군이 직접 찬술한 것이다. 또한 동왕 26년(1444) 운회를 언문으로 번역하는 일에 형제들과 함께 관장하였으며, 신미와 더불어 불서를 번역하는 일에 관여하여 일찍이 언해 능력을 키우는 기회를 갖기도 했다. 세종대에 불서 번역이나 편찬은 세종이 불교에 관심이 두터워 행해진 일이나 그 영향은 어느 아들보다도 수양대군이 가장 크게 받았음은 재위 후에 많은 불교 서적의 간행과 언해한 일로서 확인할 수 있다. 문종조에서도 세조는 「陣說」을 수정하여 새로 「陣法」을 편찬하였으며, 문종으로부터 음악에 조예가 있음을 인정받아 女樂을 개혁하는 일을 관장하기도 하였다.³⁶⁾

그 외에도 수양대군은 田制詳定所의 都提調를 맡기도 하고, 부왕과 세자인 형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중국 사신을 접대하고 연회를 대신 베풀기도 하여 일찍부터 외교적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문종은 동생인 수양대군의 학식과 재능을 높이 인정하고 신뢰함으로써 학술적인 분야 뿐 만 아니라 정치적 일에도 많이 관여토록 하였다.

3.1.2 卽位後의 學術活動

世宗의 뒤를 이어 즉위한 文宗이 2년 3개월 만에 승하하고 端宗이 11세의 어린나이에 즉위한 후 金宗瑞, 黃甫仁 등이 권력을 좌지우지 하게 되었으므로 前述한 바처럼 首陽大君은 의정부 권신을 제거하고 왕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단종 1년(1453) 10월에 무인들과 거사를 하여 성공적으로 권력을 장악하였다. 이후 동생 安平大君을 유배한 후 사약을 내리고 단종으로부터 禪位 하는 형태

33) 「世宗實錄」 권93, 23년 6월 癸巳. 동 권107, 27년 3월 癸卯.

34) 「增補文獻備考」 권243, 歷代著述 參照

35) 「世祖實錄」 권1, 원년 6월 癸亥

36) 「文宗實錄」 권8, 원년 6월 丙戌., 동 권12, 2년 3월 乙巳.

로 왕위마저 찬탈하여 1455년 38세로 조선 7대왕으로 즉위하였다.

世祖는 유교정치의 도리에 어긋나는 왕위 찬탈이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즉위 초부터 文治를 표방하고 유학을 진흥하며 올바른 정치를 행하고자 스스로 처음부터 經筵을 통해 군덕을 함양하고 왕도정치를 실현하고자 굳은 의지를 나타내 보이기도 하였다.

경연이란 왕이 학문을 닦기 위하여 신하들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유신을 궁중에 불러 경서와 사서 등을 강론케 하는 제도로써 왕의 학문과 치도를 함양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었으며, 일면 국정외 중대사를 논하고 그 득실을 토의하는 자리이기도 하였다. 왕이 강론한 사실이 기록으로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고려睿宗때 궁중에 文德殿이나 清讌閣을 두고 학사들과 詩, 書, 易, 禮記 등의 경서를 여러 차례 강론하였음이 高麗史에 나타나고 있으며, 경연이란 말은 仁宗10년(1132)에 처음 보이고 恭讓王에 이르러 경연제도의 체계가 확립되었다고 밝히고 있다³⁷⁾. 조선조에 들어서 太祖朝에 이미 고려의 예를 따라 “領事一 侍中以上, 知事二 正二品, 同知事二 從二品, 參贊官五 正三品, 講讀官四 從三品, 檢討官二 正四品, 副檢討官 正五品, 胥吏 七品去官”³⁸⁾으로 완비된 직제가 마련되었지만 실제 그 운영은 왕의 무관심속에서 거의 실시되지 못하였다. 왕권 강화에 주력했던 태종도 경연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 마찬가지로 유명무실하게 존속 되었을 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세종은 즉위한 후 곧 世子 때 侍講을 담당했던 書筵官을 경연관으로 改除한 다음 관원을 증가시키고 곧 바로 경연을 갖기 시작하였고 “政事に 부지런하고 성품이 독서를 즐겨하여 날마다 편전에서 政事을 보고나면 경연을 열었으며 상왕의 외유나 연회를 받드는 일 이외에는 잠시도 폐한 일이 없다”³⁹⁾고 밝힌 것으로 보아 세종이 학문 연마에 얼마나 진력하였는지를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문종도 재위기간이 짧았지만 부왕의 예를 그대로 쫓아 경연

37)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38) 『太祖實錄』 卷1, 元年7月 丁未

39) 『世宗實錄』 卷1, 元年3월 辛未 “上勤於聽斷 性好讀書 每日於便殿覽事 退開經筵 除奉上王遣宴之外 未嘗暫廢”

을 열고 학자들과 더불어 강론하며 군덕을 쌓는데 부지런하였다.

세조도 그러한 사실을 직접 보고 들어왔기에 즉위 다음날 도승지 申叔舟에게 이르되, “經筵은 人主가 儒臣과 더불어 道義와 政治를 강론하는 자리이니 혹여 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나는 날마다 경연에 나가려하는데 ...『宋元節要』, 『通鑑綱目』, 『大學衍義』가 모두 나라를 다스리는 법도에 간절한 것인데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⁴⁰⁾라는 물음에 신숙주가 『宋元節要』를 먼저 진강 할 것으로 답하여, 삼일 후 이를 교재로 하여 경연을 열기 시작하여 적극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용할 의지를 나타내 보였다. 그러나 즉위 초 정치혼란기에 왕권 강화에 주력해서인지 실제 경연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세조 2년(1456) 6월에 단종 복위사건을 밝혀지자 “집현전을 파하고 경연을 정지하며 집현전 소장본을 모두 예문관에서 관장하라”⁴¹⁾

고 하여, 세종조의 학문에 온상지 역할을 한 집현전이 혁파되고 경연도 폐지하였다. 그간의 실제 경연은 1년 정도 행하여졌으며 사용된 교재는 겨우 『宋元節要』, 『通鑑續編節要』 등 2종에 불과할 정도로 경연에 대한 초심의 의욕은 점차 사라지고 고작 동왕 2년 9월 思政殿에서 殿講을 실시하여 강론하는 자리를 가졌을 뿐이었다. 이에 대해 判書雲觀事 梁誠之가 동왕 3년 3월에 경연을 다시 열어 녹관과 검관을 두기를 서연과 같이 하여 날마다 윤번으로 진강시켜 聖學에 정진할 것을 간절히 요청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유 즉 ① 국가의 일이 너무 많아 여가가 없다는 점, ②세종 때부터 위촉 받은 수찬사업이 많다는 점, ③세자를 위한 三朝內錄을 비롯하여 實錄, 產書, 六典 등을 찬집함에 직접 考覽해야 한다는 점, ④不惑의 나이에 書生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점, ⑤習陣講武가 여의치 못하다는 점 등을 들고 경연을 열지 않았다. 그 후에도 경연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이유로 경연은 옛날 성현들이 행한 일이 아니니, 堯 舜도 경연을 안 열었고 周公도 스승이 없었는데 宋朝의 人主들이 구구하게 만든 것을 법받을 수 없다고 하며 거부하였다.⁴²⁾

40) 『世祖實錄』 권 13, 원년 윤6월 丁巳

41) 『世祖實錄』 권 4, 2년 6월 甲辰. “命罷集賢殿 停經筵 其所藏書冊 並付藝文觀掌之”

42) 『世祖實錄』 권7, 3년 3월 戊寅 동 권33, 10년 4월 甲辰

이처럼 세조는 자신의 학문을 연마하고 군덕을 쌓는 일에 별 관심을 갖지 않았으므로, 세종이나 문종조의 왕 자신의 군덕함양은 물론 신료들의 문풍을 진작시키고 나아가 서적문화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경연의 역할은 전혀 없었다.

그러나 세조는 경연을 폐지하고 대신 동왕 2년 9월에 전강을 실시한 후 이를 제도화 하여 동왕 5년(1459) 11월에 “이제부터는 常參할 때는 經書를 논강하는 것을 일정한 법식으로 삼으라”고 하여⁴³⁾ 재위 기간 내 경연과는 성격은 다르지만 군신이 함께하는 강론 즉 殿講은 지속되었다.

전강이란 관료들을 불러서 왕의 명에 따라 시강하며 시비를 토론케 한 것으로, 종전의 경연과는 달리 왕의 군덕함양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유생과 관료들의 학문진흥에 목적을 둔 것이다. 그러므로 전강 일정이나 강론교재, 참여자 선정에 대한 재량권을 전적으로 왕이 갖고 있었다. 전강에는 대체적으로 宗親, 宰樞, 成均儒生, 文武臣, 承旨 등이 참여하여 종전의 경연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세조는 수확하는 자세로 강론을 듣는 것이 아니라 강론의 잘 잘못을 평하여 질타하기도하고 칭찬과 상을 내리기도 하여 신료들을 교육시키는 분위기로 운영 하였다. 전강의 교재도 經書와 史書가 주었던 경연과는 달리 다양한 주제로, 經史를 제외하면 「陳法」, 「兵要」, 「諭將三編」, 「兵將說」, 「兵法大旨」, 「武經」 등의 병법서가 자주 강론되었고 그 외로 「律呂新書」, 「大明律」, 「印地儀頌」, 「東坡集」, 「楞嚴經」, 「韓愈文」醫書, 吏文, 漢訓, 冶鑄法, 打圍法, 新舊詔令 등이 강론으로 채택되기도 하였다.⁴⁴⁾

이상과 같이 세조는 잠저시에 經史는 물론 佛學, 曆學, 算學, 音律, 醫術, 卜, 技藝 등에 두루 통할 만큼 높은 수준의 학문을 성취하였다고 자신하였음인지 스스로 학문 활동에 전력을 쏟지 않고 가르치고 지휘 감독하는 입장에서 학술활동을 하였다. 도서편찬에 관해서도 세조는 원년 6월에 집현전 교리 洪應, 韓繼禧 등을 불러 이르기를

43) 「世祖實錄」 권18, 5년 11월 戊戌. “... 自今常參論講經書 以爲恒式”

44)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92-94. 여기에 세조가 실시한 전강을 조사해 일자 별로 교재를 적은 목록이 있다.

“내가 일찍이 상왕의 명을 받고 「貞觀精要」의 주를 붙인바 있다. 당 태종이 진서를 찬술하였는데 이를 평론하는 자가 이르기를 ‘서사를 찬술하는 것은 人主가 힘을 바가 아니다.’라고 하였다. 이제 내가 「정관정요」에 주를 붙이는 것은 당 태종과는 다르나 여러 사무가 번다하여 겨를이 없으니 너희들이 그 주를 달아서 올리도록 하라”⁴⁵⁾

고 명한 일이 있듯이, 세조는 잠저시에 도서편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이제는 일선에서 물러나 문신들의 학문진흥을 장려하고 지도하는 입장에서 편찬 명을 내리는 것으로도 왕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점을 은근이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세조는 세종처럼 숭신하여 당대의 학풍을 진작시키는 선도적인 역할은 하지 못했다. 그러나 관료들의 학문진흥을 목표로 전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는 경연보다는 미흡하였지만 당대의 도서편찬과 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한 일이다.

3.2 世祖의 文興政策

3.2.1 世祖의 學問觀

세조가 비록 단종복위 사건으로 연류된 자들 중 집현전 학사가 많아 혁파로 인하여 별도의 인재양성과 위촉된 학술 활동을 진작 시키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다. 그러한 대책과 방안을 언급하기에 앞서 세조의 학문관을 밝혀보고 그것이 학술문화 발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세조의 학문관은 앞에서 밝힌 학문적 활동에서 밝힌 여러 사항을 참고하여 보면, 다음 세가지 점으로 구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文과 武를 동일시 한 점이다.

세조는 잠저시에 활쏘기와 말타기를 즐겨했고 글 읽기에도 전력을 다해 높은 수준의 학문과 무예를 겸비했음을 이미 앞에서 밝혔다. 이 점은 세조가 일

45) 「世祖實錄」 권1, 윤6월 癸亥

찍부터 문과 무를 동일하게 중요시 한 것으로 보아, 文治主義를 표방한 조선 시대의 사대부나 관료들이 武보다는 文을 숭상했던 일반적인 통념을 벗어난 예외적인 행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왕으로 즉위하여 통치하면서도 자주 무를 중시하거나 문과 동일시했던 기록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적어보면,

세조 8년(1462) 4월에 도승지에게 “내가 武備에 유의 하였더니 士卒이 정련 되고 병기도 완전하여 근심할 것으나, 다만 儒學이 혹 廢弛 되고 있는지 염려스럽다”⁴⁶⁾고 걱정한 일이 있었는데 이는 세조 자신이 평소 문보다 무에 더 관심을 쏟아 상무적인 통치를 행하였음을 긍정적으로 나타낸 일이라 하겠다.

殿講을 실시할 때도 문신과 무신을 동시에 소환하여 경서를 강론하고 난 후에는 병서를 강하게 한 일이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으며, 어떤 때는 習陣까지 하도록 하였다. 동왕 7년 정월 과거시험에서 체제를 준 다음, 유생 가운데 활쏘기를 원하는 자는 습사케 하고 명중시킨 자는 이름과 나이를 적어 보고 하라고 지시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승문적인 유생들 중에 무를 겸비한 자를 우선 등용하려는 세조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이다. 또한 같은 달 세조가 正朝 會禮宴을 거행할 수가 없게 되자 承政院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饌物을 성균 유생에게 하사하기를 아뢰었더니, 오히려 入直軍士들을 먹이라고 지시한 일도 있었던 것⁴⁷⁾으로 미루어 武人에 대한 배려도 컸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하간 세조의 이러한 崇武的인 성향은 이미 앞에서 밝혔듯이 전강의 교재로 병서가 자주 강론된 것과 관련이 있으며, 당대의 도서편찬과 간행에도 어느 정도 반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는 다양한 實用學問을 受容한 점이다.

조선시대의 지배층인 사람들이 중점적으로 수학했던 학문으로는 유교의 제반 경서와 역사서이다. 경연에서도 주요 강론 내용은 經史이었다. 그러나 세조는 이론적인 경사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문 즉 실용적인 학문을 수용하여

46) 『世祖實錄』 권28, 8년 4월 辛巳

47) 『世祖實錄』 권23, 7년 1월 乙丑. 己酉.

함께 강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그 사례를 몇 가지 들어 보면, 세조는 5년 11월에 “오늘부터 상참에서는 경서 강론을 형식으로 삼는다” 하고는 참석한 문신에게는 경서를 강하게 하였고, 장수들에게는 「兵要」와 「陳法」을 강하도록 하고 의원들에게는 의서를 강하게 하였다.⁴⁸⁾ 며칠 후 신료를 불러 후원에서 習陣하도록 하고는 「治平要覽」 수찬관들을 불러 경서를 강론케 하고 內醫와 醫書習讀官들을 불러서는 의서를 강하게 하였으며 또 講肄生徒들을 불러서는 漢訓을 강하게 하였고 다른 문신에게는 楷書, 草書를 쓰게 한 다음 무장들에게 활쏘기를 시켰다.⁴⁹⁾ 또한 10년 4월에 세조는 “근래 科學의 법은 恒式이 있어 學者들이 程文에 구애되므로, 博士 宏材의 선비가 나오는 일이 드물다. 후 經書를 강하기도 하고 혹은 史書를 강하되 武經을 겸하게 하며 혹은 製述을 보게 하여, 모두 임시로 酌定한다면 사람들이 모두 一書에만 전념하거나 一藝에만 구애되지 않아서 요행을 바라는 자가 없어질 것이다. 내년 봄부터는 이 같은 방식으로 시험보이도록 하라”⁵⁰⁾고 하여 경서, 사서, 병서 등을 함께 시험과목으로 포함시켰다. 이외에도 세조는 儒者라 하더라도 天文, 地理, 醫藥, 卜筮를 모두 알아야 만이 비로소 通儒라 이를 수 있다 고했으며, 算學의 필요성 등을 언급 하였다.

세조는 이처럼 당시 儒者들이 중요시 했던 經史만이 아니라 그들의 관심 밖의 학문, 雜學이라고 칭했던 실용 위주의 다양한 학문을 수용하고 권장하였는데, 여기에는 天文, 地理, 陰陽, 律呂, 醫學, 史學, 詩學 등의 七學이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서는 동왕 10년 7월에 세조가 梁誠之와 任元濬 등에게 학문을 7門으로 구분하여 각 學門마다 젊은 문인을 포함 6명씩 배정하여 연구케 51)하고 뒤에 강론을 실시했던 점에서 짐작케 한다.

48) 「世祖實錄」 권18, 5년 11월 戊戌

49) 「世祖實錄」 권18, 5년 11월 庚子

50) 「世祖實錄」 권33, 10년 4월 甲辰

51) 「世祖實錄」 권33, 10년 7월 戊寅. 각 학문별 배정은 天文門에 李亨元, 鄭孝常, 河叔山, 金輶, 金敬禮, 金升卿이고, 風水門에 崔八俊, 裴孟厚, 金礪, 金梯臣, 金嶠, 申叔楨이고, 律呂門에 成俊, 安緝, 原甫崙, 朴良, 魚世恭, 崔漢良이고, 醫學門에 李壽男, 孫昭, 李吉甫, 金義綱, 李益培, 柳文通이고, 陰陽門에 柳軫, 崔叔精, 柳休復, 金良堧, 金宗直이고

셋째는 釋家를 儒家보다 崇尚 한 점이다.

세조는 역대 조선 왕들 중에 가장 호불 내지 숭불사상을 가지고 불교를 부흥 시켰던 왕으로 주지되어 있다. 이미 대군 시절부터 석씨의 도가 공자보다 나은 것이 다만 하늘과 땅의 차이만이 아니다 라고 한바 있듯이 불교가 유교보다 우월함을 언급하였으며 즉위하여서도 세조는 공자와 석가를 함께 호칭하는 경우 석가를 공자보다 앞세워 부르기를 선호하였다. 이러한 숭불사상을 갖게 된 것은 불심이 돈독했던 부왕의 많은 영향과 직접 각종 불사 및 불서 편찬 간행에 관여함으로써 점차 불교에 관심을 갖으면서 호불적 성품을 지니게 된 것이라 사료된다.

崇儒抑佛의 유교정치를 표방한 조선시대이지만 초기부터 역대 왕들은 개인적으로 불교신앙심을 갖고 여러 가지 불사가 행하였으나 유신들의 반발로 국가의 정책에 불교를 반영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런 중에도 불심이 돈독한 世宗은 궁내에서 각종 불사를 행하였고 불서의 편찬과 간행도 하였다. 그러나 文宗朝에는 더욱 강하게 신료들이 불교 행사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선왕 때보다는 많이 줄어들었으며, 端宗朝에도 崇儒思想을 가진 유신들이 실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불교 행사에 더 많은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崇佛思想을 가진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고 유신들의 권한을 약화시켜 놓았기에 선왕들에게 있었던 반대는 거의 없었으므로 불교를 부흥시키는 일에 전력을 쏟을 수 있었다. 한번 불교부흥 정책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鄭麟趾가 동왕 4년 2월에 “성상께서 주자소에서 『法華經』 등 여러 경을 수백권을 인행하게 하였고 또 『大藏經』 50벌을 간행하였는데 또 이제 『釋譜』를 간행하니 신이 생각하건데 옳지 못한가 합니다”⁵²⁾하고 진언한 일이 있었을 때 왕이 크게 노하고 잔치를 과하였으며 정인지를 의금부에 추국토록 엄하게 세조의 이러한 극성스런 종교적 숭불사상은 당대의 학술 문화에 영향을 미치어 어느 왕 때보다도 불교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확산되었음은 당연한 일이

詩學門에 崔敬止 閔粹, 柳洵, 金克儉, 成倪, 李則이었다.

52) 『世祖實錄』 권11, 4년 2월 辛丑, 壬寅.

다. 세조는 친히 불경에 구결을 달고 刊經都監을 설치하는 등 유학 경전보다는 佛書諺解와 인쇄에 더 중점을 두었다. 좀 더 구체적인 도서편찬 간행에 대해서는 뒤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한편, 세조는 승지 선발에 유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한바 있으며, 세자에게 무보다는 문을 닦도록 서연관에게 교육시키도록 부탁하였고 세자에게 유자를 공경하도록 이르기도 하였으며, 경서에 구결 작업과 강론을 지속적으로 행한 것을 볼 때 현실적으로 유학에 중요성은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3.2.2 世祖의 文興政策

1) 儒生에 대한 親講과 獎學

세조는 문·무를 공히 중요시하여 武備에 유념하고 習陣, 習射 등 군사훈련을 지속적으로 갖으면서도 한편 학문의 발전과 인재양성의 필요성이 인식하여 유생들의 학풍을 진작 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자 노력하였다. 특히 癸酉靖亂과 단종복위 사건 등으로 위축된 학풍을 전환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조는 유생들이 학업에 전념케 할 것을 격려하는 의미에서 세조3년 9월에 다음과 같이 성균관에 御書를 내려 보냈다.

“成均館에서 人材를 양육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룰 수도 없거니와 또한 사람마다 다 쓸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비록 인재가 있더라도 부지런히 가르치지 않으면 이루지 못하며, 비록 가르침이 있다 하더라도 시험을 보이지 않으면 쓰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항상 격려하고 자주 시험보임으로써 그 등용을 대비해야 하는데 이것이 大旨인 것이다. 나는 크게 정치가 어지러웠던 뒤를 이으니 모든 정무가 번잡하여 교학을 일으키고 인재를 양육할 겨를이 없었다. 그런데도 學官으로서 한 사람도 진언하는 자가 없으니, 이는 국가에서 學堂을 세워 위임한 본의가 아니다. 이제부터 매월 말에 유생들이 독서한 책을 기록하여 啓聞하라. 내가 장차 親講하겠다.”⁵³⁾

이처럼 세조가 친히 성균관 유생에게 강의를 하겠다는 말이 있는 후 달포가 지난 11월에 종친, 재추와 승지, 사관들이 入侍한 자리에서 성균관 유생에게 친강을 시작하였다.⁵⁴⁾ 전례 없는 왕의 친강이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유생에 입장에서는 전보다는 좀 더 학업에 전념하였을 것으로 믿어진다. 물론 자발적이고 능동적이기보다는 피동적이고 강압적인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었는지도 모를 일이지만 유생들의 학문 장려를 위한 세조의 열의는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세조는 유생들의 원활한 학문활동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서가 필요함을 인식하여 친강에 앞서 도서를 간행하여 유생에게 보급할 것을 승정원에 지시하기도 하였으며, 세조 6년 11월에는 각도 관찰사에게 유시하기를 “근래 학교의 勸勵하는 방법이 이완됨이 없지 아니하다. 내가 친히 성균관에 나아가 四學의 유생까지 모아놓고 강경과 제술을 하여 격려하려고 하니 경들도 내 뜻을 본받아서 순행할 때에 친히 학교에 들러서 강경하고 제술하고 교관을 경계하여 타일러서 더욱 가르치는 것을 부지런히 하도록 하라. 혹 게을러서 능히 가르치지 못하는 자는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경들은 그것을 효유하라”⁵⁵⁾라고 하여 관찰사에게 자신이 하는 것처럼 관내의 향교를 방문하여 친히 유생 교육을 권려하여, 전국적으로 문풍이 진작되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예조에 진지하기를 “장차 成均館에 가서 四部學堂 유생까지 모아 강경이나 제술로 시험하여 그중에 우등한자를 會試에 直赴하도록 하겠다”고 하여 유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것을 권장하였다.

한편 예조에서도 세조의 文興을 위한 노고에 부응하여 성균 유생에게 학문을 권장하고 독려하는 방안으로 전조의 법에 의하여 國學에 九齋인 大學齋, 論語齋, 孟子齋, 中庸齋, 禮記齋, 春秋齋, 詩齋, 書齋, 周易齋를 설치하여 다음과 같이 운영할 것을 건의하였다. 대학으로부터 주역재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올라가게 하되, 한 책을 다 읽고 그 내용의 뜻을 훤히게 통할 때까지 기다리

53) 『世祖實錄』 권9, 3년 9월 己卯

54) 『世祖實錄』 권10, 3년 11월 壬戌, 丁丑, 丙戌

55) 『世祖實錄』 권 22, 6년 윤11월 辛亥

도록 한다. 주역재에 이르러 이미 능통한 자는 동반 서반에서 재능을 헤아려 서용하게 하였다가 매 式年에 會試에 바로 나가게 한다. 四書를 통하고 禮記 齋에 올라 이미 능통하게 된 자는 生員·進士·幼學 임을 논하지 말고 나이 차례대로 한다. 매 식년의 강경할 때를 당하거나 四書를 강하고 아울러 「訓民正音」, 「東國正韻」, 「洪武正韻」 吏文과 또 五經, 여러 史書를 시험한다. 등의 운영 방안을 아뢰어 왕이 허락하였다.⁵⁶⁾ 이와 같은 성균관 학제가 제대로 시행된 것 같지는 않지만, 성균관 유생들에게 경쟁력을 강화하여 새로운 학풍을 불러일으키는 계기는 되었을 것이다.

또한 예조에서는 京外의 학도의 학풍을 쇄신하고 교육을 담당하는 교관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왕께 청하기를 “지금부터 경외의 教授官 教導 學長은 학문이 精熟하여 師表가 될 만한 자를 택하여 제수하고, 성균관과 四部 학당의 勤慢은 本曹에서 항상 검찰하여 계문할 것이며, 외방은 관찰사가 친히 講問하고 本曹에 이문하여 아뢰게 하되, 특히 성과가 있는 자는 褒獎하고, 경외를 막론하고 생원, 진사 및 升補入學者를 제외하고 나이 40이 넘는 자와 배우지 아니하고 閑游하는 자는 각기 그 敎官이 本曹에 보고하면 兵曹에 移文하여 군역에 充定함으로써 징계할 것이며, 수령이 학교를 맡게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관찰사로 하여금 엄히 料理토록 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따랐다.⁵⁷⁾ 한편 고관들에게도 “관록이 높아질수록 학문에 유의하지 않아 날로 저하되니 큰일이다. 비록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도 늘 성현의 학문에 유의하여야 한다”고 격려하면서 宰樞들에게 학풍을 고취하기 위하여 임시로 발영시를 만들어 2품 이상 관리 중에서 글 잘하는 사람을 선발하도록 하였다.

세조는 이와 같이 유생들에게 친히 강론도 하고 여러 가지 獎學政策 방안을 받아들여 시행하였으며, 成均館이나 四學의 유생 뿐만아니라 고위직의 문·무신에게도 학문을 장려하는 제도를 마련하고 실시함으로써 학풍을 확산시키고자 노력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56) 「世祖實錄」 권21, 6년 9월 庚寅

57) 「世祖實錄」 권25, 7년 7월 乙丑

2) 人才養成 制度(兼藝文) 實施

세조 2년(1420) 단종 복위사건을 계기로 우수한 문신들의 집합체인 집현전을 혁파한 결과로 수행하던 중요한 직무는 폐기되었고 인재의 양성, 문풍 진작을 위한 그 기관의 사명도 일단 끝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주의를 국시로 하던 조선에 있어 문신의 양성과 학문의 진흥은 결코 등한시킬 수 없는 과제였다.

세조 역시 문신과 갈등이 컸지만 집현전학사의 역할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인재 육성을 위한 대안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으므로 동왕 5년(1459) 6월에 젊은 인재로서 司憲府持平 李永垠, 承文院副校理 鄭孝常, 世子司經 李淑城, 仁壽府丞 閔粹, 奉常綠事 魚世謙, 成均注簿 李克均, 承文院著作 魚世恭, 世子右正字 許琮, 成均學諭 金宗碩, 權知承文院副正字 金宗直 등을 선발하여 모두 閑官에 제수하여 讀書케 하고 「中庸或問」을 각 1건씩 하사하였다.⁵⁸⁾ 이처럼 처음 10명의 문신을 선발하여 학문에 전념토록하고 동년 7월에 문신 정효상 등 8인을 불러 여러 종친, 재추, 승지 등이 입시한 가운데 「中庸」을 친히 강하였다.

그 후에도 10인 중 일부 문신들이 강경 자리에 참석한 일이 있었으나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해서인지 세조 5년 12월에 承旨 李克堪과 中樞院 副使 金鉤에게 인재육성 방안을 재차 강구하도록 전교하였는바, 10일후 吏曹에서 “文臣들이 실무에 구애되어 학문에 專業하는 자가 적으니, 청컨대 3품 이하의 문신으로 젊고 총명 민첩한 자 15인을 택하여 藝文館職을 兼하게하고 本館에서 학업을 익히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계청하여 왕이 허락하였다.⁵⁹⁾ 이것이 이른바 새로운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兼藝文을 설치하게 된 것이나, 곧 시행되지 못하다가 세조 8년(1462) 5월에 비로서 실현을 보게 되었다. 이때에 세조는 도승지 洪應에게 명하여 文士로서 學術있는 자를 선발하여 계문토록 하였

58) 「世祖實錄」 권16, 5년 6월 己卯

59) 「世祖實錄」 권18, 5년 12월 甲戌. “吏曹啓 文臣拘於吏職 專業學問者少 請擇三品以下文臣聽敏者十五人 職兼藝文館 令仕本館習業 從之”

는데, 홍응은 判內資寺事 李坡, 司憲掌令 李永恩, 世子弼善 金壽寧, 議政府檢詳 朴槩, 成均直講 李克敷, 前 都事 孫舜孝, 吏曹佐郎 魚世謙 鄭蘭宗 閔粹, 前 佐郎 鄭孝常, 成均注簿 崔漢良 李壽男 金宗蓮, 咸吉道都事 許琮, 刑曹佐郎 李孟賢, 世子侍直 朴時衡, 訓練注簿 崔敬止, 成均博士 朴始亨, 承文院著作 金宗直, 正字 柳文通, 藝文待教 許諤, 成均學正 李淑文, 漢城參軍 魚世恭 등을 뽑아서 아뢰었다. 이에 李坡 등에 명하여 兼藝文을 띠게 하고 매월 초하루와 보름의 朝會 후에 經書를 친강하게 하고, 또 한 달에 2번씩 賦詩를 짓게 하였다.⁶⁰⁾

이처럼 검예문으로 23명을 새로이 선발하고 수일 후부터 종친과 공신 및 제장들이 입시한 가운데 이들 중 수명씩 불러서 경서를 강하도록 하였으며 현실적으로 시행할 문제를 주고 그 방안을 製進토록 하여 학식을 연마케 하였다. 그리고 동왕 8년 6월에는 이들의 학문을 권장할 방법으로 한관을 제수 하고는 번갈아 숙직하면서 서로 토론 강습토록 하였고, 동년 8월에는 예조로 하여금 검예문의 이름을 籌에 써두고 매월 1일과 15일에 3인씩 선발하여 강경 혹은 제술을 시험하여 그 通과 不通 및 등급을 모두 장부에 기록해 두고 세초에 일일이 써 올리도록 하였다.⁶¹⁾

이 외에도 검예문의 장학을 위한 특진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도 하고, 나아가 그 인원을 증가하였다.⁶²⁾

이와 같이 세조는 인재양성 제도로 검예문을 설치하여 부왕 시절에 집현전을 대신하고자 많은 열성과 노력을 쏟은듯하나 세조의 전체적이고 자의적인 운영⁶³⁾으로 학술활동이 활발하지 못하였다.

60) 『世祖實錄』 권28, 8년 5월辛亥

61) 『世祖實錄』 권28, 8년 6월癸酉

62) 『世祖實錄』 권33, 10년 7월丁巳, 甲戌. “崔恒의 건의에 따라 兼藝文의 학업을 권려하는 뜻에서 매월 1일 15일 문학을 주관하는 당상관이 시와 문의 글제를 내어 製述토록 하고 세초에 통산하여 우등인자는 품계를 올려주어 학문을 권장하는 법도를 행하는 등 장학 특진을 마련 시행하였다. 이때 18명을 추가 선발하였다

63) 金泰永, “朝鮮初期 世祖王의 學術政策,” 『東洋學』 25집(1995. 10), 97-146.

4. 世祖朝의 圖書編纂 및 刊行

4.1 圖書編纂

세조는 潛邸時에 여러 차례 도서편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였고, 누구보다도 문풍을 진작시키기 위해서는 도서의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일찍이 “자고로 우리나라에는 서적이 적다 일반을 교도하려면 책을 만드는 일이 급선무이므로 학자들은 부왕때와 같이 편찬사업을 하도록 하라”고 격려한 바 있다. 또한 경연을 열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로 “세종때 위촉 받은 편찬사업이 많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러한 점은 세조가 부왕의 업적을 繼述하여 행하는 사업 중 도서편찬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시행할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세조조에 편찬된 도서를 주제별로 나누어 밝혀 보면 다음과 같다.

1) 歷史, 地理書

역사서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文宗實錄」, 「國朝寶鑑」, 「東國通鑑」 등이 해당하는데 「文宗實錄」은 세조 원년 11월에 편찬했으며, 「國朝寶鑑」은 申叔舟 등이 세조의 명을 받아 동왕 4년 1월에 완성하였다. 「東國通鑑」은 동년 9월에 최항 등에게 위도록 하였으며, 동왕 10년 10월에는 「靖難日記」를 신숙주 등에게 찬하도록 하였다. 「東國通鑑」은 계속 재임기간 편찬 작업이 이루어졌으나 완성을 못하고 성종조에 이르러 편찬이 완료되었다. 세조 13년 1월 梁誠之가 「海東姓氏錄」을 찬진하였다.⁶⁴⁾

지리서로는 세조 원년 7월 「慶尙道地圖」와 「熊川縣圖」를 黃守身이 올렸으며, 동왕 9년 5월에 본국지도를 수찬토록 명하여 11월에 鄭陟, 梁誠之가 「東國地圖」를 수찬하였다.⁶⁵⁾

64) 「世祖實錄」 권2, 원년 11월 辛巳. 동 권11, 4년 정월 癸亥. 동 권14, 9월 丙申. 동 권34, 10월 甲午. 동 권41, 13년 정월 壬辰.

2) 兵書

세조가 관심이 많았던 분야이므로 잡저시에 「歷代兵要」 편찬시 참여하였고 재위한 후에도 동왕 3년 10월에 「歷代兵要」의 간략판을 편찬하여 무사들에게 항상 숙독케 한 바 있었고 66) 5년 10월에 「陳法」을 확정하여 「兵政」으로 개명하였다. 세조 7년 10월에는 「兵經(兵將說로 改名)」을 세조가 직접 찬술하였고, 이듬해 2월 신숙주 등이 이 「兵將說」을 주해하였다. 67) 동년 12월에는 韓繼禧 등에게 「五行圍法」을 작성하도록 명하였고, 동왕 9년 10월에 「御製諭將說註解」가 신숙주, 崔恒이 찬진하였으며, 동왕 10년 9월에는 세조가 정한 「武經口訣」을 가지고 최항 등이 명을 받아 「武經註解」를 찬하였다. 68) 세조 14년 7월에는 曹錫文 등에게 「北征錄」 69)을 찬정하도록 명하였다. 이렇듯 병서 편찬에 있어 세조는 직접 찬술하거나 구걸을 달고 주해토록 한 것으로 보아 도서 편찬에 가장 관심이 컸던 분야가 병서인 것으로 이해된다. 병서의 편찬이 두드러진 점과 앞에서 밝힌바 있듯이 殿講의 교재로도 병서가 자주 채택되었음은 자신의 崇武的인 성향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하겠다.

3) 經書

유교와 관련된 것을 포괄해서 경서류로 간주하여 편찬된 것을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세조 9년 11월에 세조는 永川君 溥과 崔灝元이 지은 「八卦圖法」을 그대로 번역케 하였으며, 동왕 11년 7월에 「五倫錄」을 梁誠之가 찬하였다. 70) 동년 10월 세조가 직접 「周易口訣」을 정하였고, 동왕 12년 2월 「四書五經」 및 「左傳」의 구

65) 「世祖實錄」 권1, 원년 7월 乙未. 권1, 원년 8월 壬申. 권30, 9년 5월 戊午. 동 권31. 9년 11월 丙寅

66) 「世祖實錄」 권9, 3년10월 丁未

67) 「世祖實錄」 권26, 7년 10월 己巳. 동 권27, 8년 2월 癸未

68) 「世祖實錄」 권29, 8년 12월 丁亥. 동 권31, 9년 10월 丁亥. 동 권34, 10년 9월 戊午

69) 「北征錄」은 世祖 6년(1460) 북쪽 毛憐衛의 여진족이 종종 변경을 침범하므로 신숙주로 하여금 여러 장수를 거느리고 정벌케한 사실을 기록한 것이다.

70) 「世祖實錄」 권31, 9년 11월 癸亥. 동 권36 11년 7월 更午.

결을 具從直 등에게 찬정케 하였다.⁷¹⁾ 이외에도 구결에 대한 교정 기사나 殿講에서도 강론 주제로 삼아 토론케 한 일이 실록에서 여러 차례 나타나고 있어 경서류 편찬 내용은 구결을 정하고 교정한 것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4) 佛敎書

세조는 대군시절 昭憲王后가 별세하여 그 명복을 빌기 위하여 세종의 명으로 석가의 일대기인 「釋譜詳節」을 엮은 바 있으며 漢文 佛典의 언해작업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으며 好佛하였으므로 재위 기간 내에 많은 불서를 편찬하였다. 다만 연구 결과로서 창의적인 저술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漢文佛書의 한글번역본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들 국역불서는 대부분 刊經都監에서 언해하고 인쇄한 것으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세조8년), 「妙法蓮華經諺解」(세조9년), 「佛說阿彌陀經諺解」(세조10년), 「禪宗永嘉集諺解」(세조10년), 「金剛般若波羅密經諺解」(세조10년) 「般若波羅密多心經略疏諺解」(세조10년),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諺解」(세조11년), 「牧牛子修心訣諺解」(세조13년), 「四法語諺解」(세조13년) 「蒙山和尚法語略錄」(세조13년) 등이 있다.⁷²⁾ 이러한 언해서는 부왕이 창제한 訓民正音 普及 과 불교대중화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높이 평가된다.

5) 政治, 法律書

세조원년 윤6월에 洪應, 韓繼禧에게 「貞觀政要」를 주해케 하였고 鄭隣趾 등에게 「功臣戒鑑」을 찬수토록 하였다. 동왕 4년 10월에 세조는 국왕이 수행해야 할 덕목을 훈계한 「訓辭」를 친히 저술하여 세자에게 내려주었다. 동왕 5년 9월에는 李克堪에게 「治平要覽」을 수교토록 하였으며, 동왕 7년 8월에 李承召에게 「明皇誠鑑」을 언역케 하고, 동왕 9년5월에는 洪應 등에게 「명황계감」의 歌詞를 언역하도록 명하였다.⁷³⁾ 「六典」을 修撰 또는 詳定, 수교토록 하

71) 「世祖實錄」 권37, 11년 10월 癸未 乙未, 동 권38, 12년 2월 辛巳

72) 千惠鳳, 「韓國書誌學」(서울: 민음사, 1997), 195-199.

73) 「世祖實錄」 권1, 원년 윤6월 丙辰, 癸亥, 동 권14, 4년10월 壬戌, 동 권17 5년 8월 庚午

여 「經國大典」의 토대를 마련해 나갔다. 동왕 12년 7월에는 「大明律講解律」, 「律學解頤」, 「律解辨疑」를 교정토록 하였다.⁷⁴⁾

6) 語文學書

세조 4년 10월 「初學字會」를 언문으로 주를 달도록 하였고,⁷⁵⁾ 6년 4월에 「皇華集」⁷⁶⁾을 완성하였으며, 9년 4월에는 서거정에게 명하여 태조, 태종, 세종, 문종의 「御製詩文」을 엮기 위하여 춘추관의 실록을 상고케 하였다.⁷⁷⁾

7) 醫藥學, 技術書 등

세조 3년 12월 李純之에게 「日月交食推步法」을 議定케 했으며 동왕 5년 0월 양성지가 「蠶書」를 주해하고 교정하여 새롭게 엮었고, 동왕 7년 3월에 새로 엮은 이 「蠶書」를 崔恒 등에게 언역하도록 명하였다.⁷⁸⁾ 동왕 5년 11월 「醫方類聚」의 교정과 주를 달도록 명하여 수년 후 작업이 끝났으나 교정에 착오가 많아 관계관을 처벌한 일이 있다.⁷⁹⁾ 동왕 9년 12월 「醫藥論」을 親製하여 이를 任元濬에게 주해토록 하였다. 동왕 12년 4월에는 徐居正에게 「馬醫書」를 편집케 하였다. 그 외 세조는 「樂說」을 親製하였다.⁸⁰⁾

이상으로 도서편찬 상황을 살펴본 바 전반적으로 저조한 편이라고 평할 수 있다. 편찬도서의 상당량이 창의적인 저술보다는 註解라든가 校正書 포함된 것은 당대의 학자양성과 학술활동이 미흡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편찬도

동 권25, 7년8월 甲午, 동30, 9년 5월 癸卯. 甲辰. 丁卯.

74) 「世祖實錄」 권11, 4년 윤2월 庚辰. 동 권24, 7년 4월 甲申. 乙酉. 동 권32, 10년 2월 戊子. 동 권41, 13년 2월 丁未. 동 권39, 12년 7월 庚午.

75) 「世祖實錄」 권14, 4년 10월 己巳

76) 「世祖實錄」 권39, 12년 7월 庚午

77) 「世祖實錄」 권30, 9년 4월 辛巳

78) 「世祖實錄」 권10, 3년 12월 丙辰. 동 권18, 5년 10월 己酉. 동 권23, 7년 3월 乙卯

79) 「世祖實錄」 권17, 5년 9월 庚辰. 동 권32, 10년 정월 甲子. 이때 孫昭 등 10인은 罷職 시키고, 柳瑤 등 7인은 파직시킴과 동시에 前仕를 삭제하고, 韓致良 등 46인은 前仕를 삭제하고 安克祥 등 11인은 告身을 빼앗았다

80) 「世祖實錄」 권31, 9년 12월 辛亥, 권38, 12년 4월 甲寅. 동 권33, 10년 7월 癸丑.

서에서 兵書와 佛書諺解書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점은 세조의 崇武的이고 好佛的 性向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諺解書 편찬으로 正音의 보급이 확산된 점은 높이 평가할 일이다.

4.2 圖書 刊行

세조조의 도서관행은 세종조에 이루어 놓은 주자나 판본들을 이용하여 필요시에는 수시로 간행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나, 대군시절 세종 문종조에 활자 주조와 인쇄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경험을 쌓은 세조는 즉위하여 새로이 활자를 주조하였는데 이미 밝혀진 것은 乙亥字, 丁丑字, 戊寅字, 乙酉字 등 4종이 있다.⁸¹⁾

을해자는 세조 원년(1455)에 강희안의 글씨를 자본으로 만든 동활자로 큰 자, 중간 자, 작은 자, 한글자가 있어 국역서의 인출에도 사용하였다

정축자는 세조 3년(1457) 9월에 요절한 의경세자의 명복을 빌려고 금강경을 인출하기 위해 세조가 친히 「金剛經」의 正文을 써서 바탕글자로 삼아 주조한 것이다.

戊寅字는 세조 4년(1458)에 세종 어제의 「交食推步法假命」의 본문 큰 자와 세조 어제의 「易學啓蒙要解」의 본문 큰 자, 細註의 특소자를 찍어내기 위해 주조한 동활자로 그 해 간지를 붙여 호칭한 것이다.

乙酉字는 세조 11년(1465)에 정난중의 글씨를 자본으로 주조한 큰 자, 중간 자, 작은 자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상의 활자로 인출된 간본 이외에도 목판본으로 주로 간경도감에서 간행된 다량의 도서가 함께 전하고 있다. 세조조의 간행된 도서를 주제별로 구분하여 밝혀보면 다음과 같다.

1) 佛敎書

세조조의 간행된 도서 중에서 불서를 제외하면 언급할 만한 것이 거의 없을

81)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309-326.

만큼 많은 불서가 간행되었다. 관련된 자료⁸²⁾를 통해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활자본 중 乙亥字本으로는 「妙法蓮華經」, 「金剛般若波羅密經」,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및 「楞嚴經諺解」, 「禪宗永嘉集」, 「天台四教儀」, 「佛說阿彌陀經」, 「金剛經諺解」, 「天台四教義集解」, 「釋迦如來成道記」, 「圓覺經口訣」, 「佛說阿彌陀經諺解」 등이 세조 3년에서 7년 사이에 간행되었고, 丁丑字本으로는 「金剛經五家解」(세조3년)가 간행되었다. 乙酉字本으로는 口訣本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세조11년)을 위시한 「佛果圓悟禪師碧巖錄」(세조11년), 「六經合部」 중의 「金剛般若波羅密經」, 「普賢行願品」, 「觀世音菩薩禮文」 등이 간행되었다.

목판본으로는 승불정책의 구현을 위한 첫 간경사업으로 세조 3년(1457) 고려에서 雕造한 海印寺 再雕大藏經을 50부나 간행하여 각 도의 명산대찰에 나누어 간직케 하였으며, 동왕5년(1459)에는 國譯增編의 月印釋譜 세조5년 를 간행하였다. 세조는 이를 경험으로 불서간행을 국가적 사업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왕7년(1461) 왕권으로 刊經都監을 신설하고 국역불서와 한문불서를 다량 인쇄하였다. 국역불서로는 앞의 편찬도서에서 언급한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諺解」 등 10여종이 밝혀져 있으며, 漢文佛書로는 간경도감 地方分司에서 간행된 것과 寺刹本 등이 20여종이나 전해오고 있음을 이미 발표된 논문⁸³⁾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其他 刊行圖書

역사 지리서로는 「通鑑論」(세조원년 을해자본), 「唐書」(을유자본), 「高麗史」(세조년간 을해자본) 「東國圖經」 地理諸書 등이 간행되었고, 정치 법률서로는 訓辭(세조3년 을해자본), 貞觀政要詳解(세조년간 을해자본), 「經國大典」의 「刑典·戶典」, 「大明律講解律」, 「律學解頤」, 「律解辨疑」 등이 간행되었다. 儒書에

82) 註 1 參照.

83) 千惠鳳, “朝鮮前期 佛書板本,” 「韓國書誌學研究」(서울: 古山千惠鳳教授停年紀念選集編纂委, 1991), 689-693.

金鉉淑, “朝鮮 世祖朝의 印刷文化에 대하여”(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46-48.

朴貞淑 “世祖代 刊經都監의 設置와 佛典刊行,”(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6), 48.

해당하는 도서로는 「易學啓蒙要解」(세조4년 무인자본), 「周易傳義」(세조12년 을해자본), 병서의 간행을 보면 「北征論」(세조7년 을해자본), 「御製兵將說(往解箋)」(세조8년 을해자본), 「兵將說」(세조11년 을유자본) 「新撰兵要」 「陣書」 「武經書」, 「御製兵家三說」, 「三甲戰法」등이 간행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의약서로는 「醫方類聚」, 「救急方諺解」(세조12년 을해자본), 「註解議約論」이 간행되었고, 천문 역법과 관련된 것은 「交食推步法假令」(세조4년 무인자본), 「七政曆」이 간행되었다. 문학서로는 「皇華集」, 「文翰類選大成」(세조11년 을유자본) 등이 있다.

이상으로 도서간행 상황을 살펴본 바 새로운 활자를 4종이나 제작하고 많은 도서를 간행한 것은 세종의 인쇄문화를 계승하여 한층 더 발전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인쇄본 중에 불서가 상당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조의 호불성향과 관련이 있으며, 불교연구와 부흥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된다

5. 結 論

世祖의 學術活動과 學問觀을 그리고 文興政策을 살펴보고 그것이 당대의 도서편찬이나 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해 보았다. 고찰한 내용의 요점을 결론적으로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종은 즉위 전에 활발한 학술활동을 하여 상당한 수준의 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왕위에 올랐으며, 왕으로서는 君德涵養을 위한 經筵 활동은 하지 않았고 관료와 유생들의 학문진흥을 위한 殿講의 자리를 마련하여 文風을 振作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스스로 修學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고 獨斷的인 강론의 운영으로 그 효과는 미약하였다.

둘째, 세종의 학문관은 文과 武를 동일하게 중요시하고, 經史를 포함한 다양한 실용 학문을 중시하였으며, 유교보다 불교를 더 숭상한 好佛 성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세종의 文興政策으로 親講을 실시하거나 兼藝文의 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큰 성과는 없었다.

셋째, 도서편찬은 전반적으로 저조한데, 이점은 당대의 학자양성이 미흡하여 학술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결과이며, 편찬도서 중 兵書와 佛書諺解書의 편찬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이 점은 세조의 崇武的이고 好佛的인 성향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넷째, 도서 간행에 있어서는 乙亥字, 丁丑字, 戊寅字, 乙酉字 등의 활자를 주조하여 세종조의 인쇄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목판본으로 불서를 다량 간행하였는데 이점 역시 세조가 釋家를 儒家 보다 우위의 학문으로 인식하였던 호불적 성향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에서 밝혀듯이 專制君主國家에서 정치 사회적 사정과 왕의 학술활동 및 학문성향은 당대의 학술문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세조조의 도서편찬은 세종조의 그것보다 매우 저조하였다고 평가되는데, 그 점은 세조의 端宗 復位事件으로 인한 集賢殿의 革罷와 학자들의 많은 손실 등이 창의적인 학술연구 활동을 위축시킨 결과로 사료되며, 도서인쇄는 세종이 이루어놓은 업적을 훌륭하게 계승 발전시켰으나 불서 간행에 편중된 것이 흠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긍정적인 측면에서 세조조의 학술 문화적 업적 중 佛書의 간행으로 불교부흥에 기여한 점, 諺解사업을 활성화하여 正音을 확산시킨 점, 經史만이 아닌 다양한 실용학문을 중시하고 권장했던 점은 先王代와는 차별화된 세조만의 특별한 학술 문화적 성과로 높이 평가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 姜泰訓. “朝鮮朝 經筵의 教育的 役割.”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대학원. 1991.
- 金泰永. “朝鮮初期 世祖王의 學術政策.” 『東洋學』 25집(1995.10). 97-146.
- 金鉉淑. “朝鮮 世祖朝의 印刷文化에 대하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1979.
- 南智大. “朝鮮初期의 經筵制度.” 『韓國史論』 6(1986). 117-170.
- 朴貞淑. “世祖代 刊經都監의 設置와 佛典刊行.”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1996.
- 서진원. “朝鮮 世祖朝의 佛敎政策과 佛書刊行에 관한 연구.” 『도서관』 제47 권 제3호(1992. 5.6). 17-24.
- 李鍾權. “朝鮮朝 國譯 佛書 刊行에 대한 研究.”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88.
- 千惠鳳. “庚午字攷.” 『韓國書誌學研究』 (서울: 古山千惠鳳教授停年紀念選集刊行委員會, 1991), 860-880.
- 千惠鳳. “朝鮮前期 佛書板本.” 『韓國書誌學研究』 (서울: 古山千惠鳳教授停年紀念選集編纂委, 1991), 689-693.
- 千惠鳳. 『韓國書誌學』. 서울: 민음사, 1997.
- 한영우. 『우리역사』. 서울: 경세원, 1997.
- 『太宗實錄』
- 『世宗實錄』
- 『文宗實錄』
- 『端宗實錄』
- 『世祖實錄』
- 申叔舟. 『保閑齋集』
- 『增補文獻備考』